



오동진의 씨네카페

한국영화 흥행 '대박' 즐겁기 보다 걱정 앞선다

# “상업성만 따라가면 낭패 볼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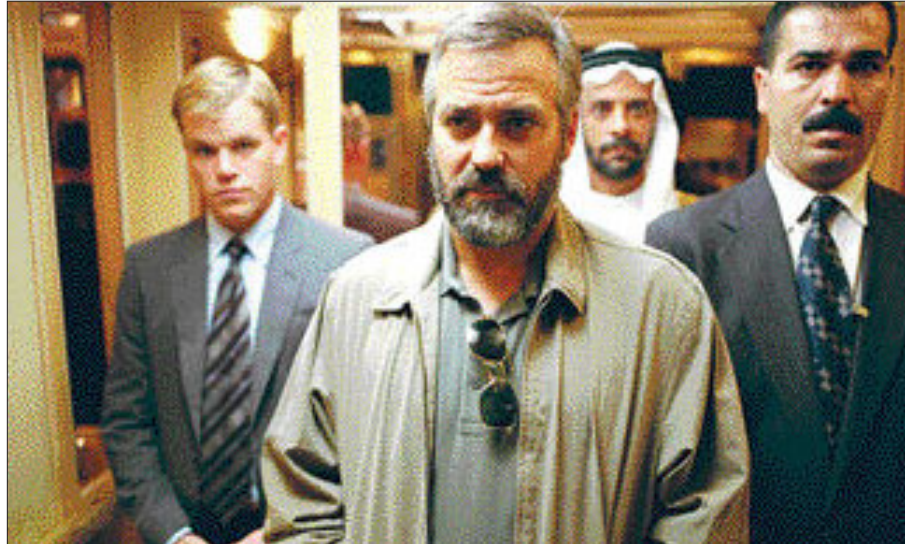
한국영화가 상반기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며 완벽하게 대세 굳히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의 전국 박스 오피스 결과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영화는 박스 오피스 10위권 안에 무려 6~7작품을 랭크시키며 연일 기업을 토하고 있다.

현재 전국 극장가를 휘젓고 있는 한국영화는 ‘청춘만화’를 비롯 ‘방과후 옥상’ ‘여고수의 은밀한 매력’ ‘로망스’ ‘음란서생’ ‘왕의 남자’ 등. 이제 한국에서는 할리우드 영화조차 흥행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약이 아니라 자칫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산업적으로는, 형식논리상으로 지금 장외에서 끈질기게 또 가열차게 전개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투쟁과 어긋나는 국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점이 문제다. 이런 상황 속에서라면 쿼터의 당위성을 일반 대중들에게 올바르게 설득해 나가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한국영화는 지난 2월 한 달에만 무려 74%대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으며 3월 수치도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물론 스크린쿼터 시스템의 존재적 당위성은 산업의 상생국면에서가 아니라 하강국면 혹은 저점국면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영화가 시장에서 강력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 한들 그것과 스크린쿼터 투쟁은 별개의 문제로 간주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호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상황이



최근의 국제분쟁이 미국의 석유재벌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 영화 '시리아나'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 반복…치열한 사고 없어

‘굿 나잇’ ‘시리아나’ 등 미국 사례 눈여겨 볼 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이고 한국영화가 언제, 어느 때 또 다시 곤두박질칠지 그 누구도 쉽게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고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쿼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것은 아무래도 대중들에게 올바른 긴장감을 부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을

벌이고 있는 영화계의 고민 또한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것.

미화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도 작금의 상황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왕의 남자’나 ‘음란서생’ 등 몇 편의 작품을 제외하고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한국영화들은 격변하고 있는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데이지’ ‘구세주’ 등 작금의 한국영화는 지나치게 ‘참라작’

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

아이러니하게도 그 같은 고민은 최근의 할리우드 영화들에서 보여진다. ‘굿 나잇 엔트랙’을 통해 미국 영화인들은 1950년대 매카시 시대로 돌아간 지금의 부시 정권을 공격하고 있으며 ‘시리아나’란 영화를 통해서도 최근의 국제분쟁이 미국의 석유재벌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곧 개봉예정인 스पा이크 리 감독의 최근작 ‘인사이드 맨’은 미국인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타 인종 혹은 타 종교권에 의한 테러공격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낸 왜곡된 공포의식 때문이라는 것을 갈파한다. ‘크래쉬’ 역시 미국인들 스스로 자신들이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인종문제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자책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더욱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영화들이 한국시장에서 거의 완벽하게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이런 할리우드 영화들은 전국 극장배급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설령 개봉이 된다고 해도 흥행에서 성공하기란 하늘에 별을 따는 일만큼 힘든 일이 되고 있다.

편안 일각에서는 한국영화가 ‘이러다가는 자칫 오래 못간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영화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에 대한 요구가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다.

한빛전문기자 ohdj@hotmail.com

한국영화 특집 제작 세계적 다큐멘터리 작가 크리스틴 최

## “한국영화계 영어대사 영화 준비할 때”

한국계 미국인으로 세계적인 다큐멘터리리스트인 크리스틴 최(49)가 전 세계 148개 국의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동시 방영되는 한국영화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중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시네마 코리아’.

이를 위해 크리스틴 최는 지난 24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당분간 한국에 머물며 다양한 영화인들과 연속적으로 접촉, 인터뷰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배창호 감독을 비롯해 김기덕 감독과 권영택 감독, 변영주 감독, ‘스캔들’의 미술을 담당했던 의상디자이너 정구호 씨, 배우 안성기, 김혜수, 전도연, 전지현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시네마 코리아’는 국내 방송프로덕션으로 영국의 BBC와 내셔널 지오그래픽, 디스커버리 채널

등의 외주를 담당해 온 ‘드림윌 엔터테인먼트(대표 한혜정)’가 제작하는 것으로 4월 초 싱가포르 소재의 ‘디스커버리 아시아’에서 최종 편성을 협의, 방영일자를 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을 방문해 기자와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크리스틴 최는 “현재 미국에서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쯤부터 한국영화계도 영어 대사의 영화를 준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최근의 한국영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크리스틴 최는 “좀더 참신한 소재와 공격적인 주제 의식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최는 지난 1989년 다큐멘터리 ‘누가 빈센트 친을 죽였는가’로 그 해 아카데미상 후보

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던 인물. ‘누가-’는 중국인 엔지니어 빈센트 친의 살해사건을 다룬 내용. 크리스틴 최는 현재 뉴욕대 영화학과 과장으로 재직중이며 그동안 줄곧 미국내 소수자들에 대한 얘기를 주제로 다루었다. 최근작은 ‘은파’로 다음 달 열리는 상해영화제 등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그는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인 2세로 주로 미국 뉴욕에서 작품활동을 해 왔다.

오동진 영화전문기자 ohdj@hotmail.com



# 장쯔이 “괴롭다”

홍콩연론, ‘게이샤의 추억’ 출연후연일 비난 화살



### 해의 영화계 이슈

중국 여배우 장쯔이가 홍콩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게이샤의 추억’을 통해 아시아권을 넘어선 월드 스타로 급성장한 그녀가 정작 홍콩에서는 무자비한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고 AP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어색한 영어 발음부터 옷차림 등에 이르기까지 장쯔이에 관한 한 거의 모든 것이 언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가히 ‘장쯔이 매리퀴’ 현상이 일고 있는 것.

홍콩에서 가장 인기있는 일간지 중 하나인 애플데일리는 최근 기사에서 “올해 아카데미명왕상 수상식에서 편집상 수상자를 발표했던 장쯔이의 영어발음이 베이징식 어투가 그대로 남아있어 촌스럽게 들렸다”면서 “특히 긴장한듯 입술이 떨렸고 수상작 ‘크래쉬’의 ‘우’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신문은 장쯔이가 아카데미 시상식 때 입었던 드레스를 인정사정없이 비난하기도 했다.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조르

지오 아르마니의 드레스가 아름답기는 했지만, 그 옷을 입은 장쯔이는 가슴이 더욱 납작해보이는 등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다른 여배우들에 비해 20년전 구닥다리 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 장쯔이 자신은 얼마전 영국 선데이 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홍콩 사람들은 중국 본토를 시골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본토출신이 내가 국제적인 스타로 평가받는데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장쯔이는 정작 중국 본토에서도 최근 인터뷰들이 부족 늘고 있다. ‘게이샤의 추억’에서 게이샤 사유리역으로 출연한 것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감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탕자리(唐子禮) 감독의 새 영화 ‘화문란(花木蘭)’에 장쯔이가 주인공으로 출연할 계획이란 언론보도에 대해 영화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조르

### ‘마법사들’ 국내 첫 디지털 방식 개봉



국내 극장가에 뉴미디어를 이용한 첨단 상영방식이 도입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송일근 감독의 장편 디지털 영화 ‘마법사들’이 국내 최초로 필름 프린트 없이 디지털 네트워크 방식으로 상영되는 것. 이번 주말 개봉된 ‘마법사들’은 경기도 분당에 설치된 CJ CGV 중앙콘트롤센터에서

터서 광네트워크망을 통해 디지털 파일 형태로 CGV 광변과 상영, 인친과 서면의 인디영화관의 디지털 영사기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동시에 상영되고 있다.

CJ CGV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이용해 상영할 경우 한 벌당 200만 원에 달하는 영화 프린트 비용을 비롯해 필름 운송비와 소모성 추가 경비 등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이번 디지털 네트워크 상영의 장점을 설명했다.

2007년도 수능시험 전까지 합격률 목표하는 강사

**위재권** 초·중·고·대·원

2007년도 수능시험 전까지 합격률 목표하는 강사

**곽내영교육학**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의 정통파 강의 특강! 선배 강사! --- 교육학개강 5월 6일

전공 국어	전공 영어	전공 수학	전공 원리	전공 논리	전공 생리	전공 물리	전공 미술	전공 체육	전공 임의
최병태	송숙	임대성	김형수	정영민	김치목	정영민	김성희	김용준	조남용

**이매션** 위대교육개강

수업료 : 10,000~17,000 (평일 10:00~17:00, 주말 12:00~17:00)

**곽내영고시학원** 수선생 : 062-529-0090 http://www.naeyoung.com

노동부직업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현대직업전문학교** **추**

“최고수준의 강사진과 알찬 교육 내용, 교육시설로 ‘현대직업전문학교’가 개교 하였습니다. 인재육성의 명문교육기관으로서 사랑을 받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강 4월 5일**

**자격증대비반 (유료과정)**

-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필·실기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실기
- 문서작성/엑셀/피워포인트/인터넷

**수시개강 자격증반(매월 1일, 15일)**

- 컴퓨터활용능력(1,2,3급), 워드프로세서(1,2급)
- 정보처리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컴퓨터그래픽스(CG)기능사
- 웹디자인기능사, 인터넷정보검색사

**직 장 인 (무료과정)**

- 정보화기초-1 (한급 100%)**  
원도우/인터넷/문서편집활용  
교육시간 PM 7:00 ~ 9:30 화, 목 (선납금 90,000원)
- 정보화기초-2 (한급 100%)**  
엑셀/피워포인트/컴퓨터활용  
교육시간 PM 7:00 ~ 9:30 화, 목 (선납금 120,000원)
- 무자격화실무(한급 80%)**  
문서편집/엑셀/피워/컴퓨터활용  
교육일정, 시간 (상담후 결정)

**참고사항**

- 고용보험가입 직장인(선착순 15명)
- 일반인 저비용 수강가능 - 교재무료제공

도청(의민로): 1, 2, 5, 8, 9, 15, 19, 20, 22, 34, 55, 111, 117, 222, 336, 555, 777  
전남고: 3, 11, 27, 38, 55, 111, 118  
이슬라리아: 2, 6, 11, 25, 28, 30, 118, 222, 518, 666

**현대직업전문학교**  
위치: 전남여고 건너편(현대고시학원내 3층)  
☎ 224-4560, 225-7200

hanbitgosi.co.kr

=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시험대비 =

**공무원 이론반 · 교정직특채**

문제풀이 · 교정직특채

개강: 4월 3일 전문강사! 전문강사의 명쾌한 강의로 당신의 합격률 높여드립니다.

**한빛공무원학원**

광주 동부경찰서서 전남여고 건너편 ☎ 234-0234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전국 특·별·출신 수석 합격률 96.7%

4월 1일 첫진도 시작반

합격률 1위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384명 중 본원출신 307명 합격률 79.9%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623명 중 본원출신 498명 합격률 79.9%

**광주고시학원** www.gwangjugosi.com ☎ 227-8003

**현대직업전문학교**

위치: 전남여고 건너편(현대고시학원내 3층)  
☎ 224-4560, 225-7200

2006년 법무부 교정직 9급(교도) 특별채용 1,000명!!

= 20세~40세 (직장인 공무원 퇴거위한 절호의 기회) =

특채 시험과목: 교정직개론, 형사소송법개론

경찰직 준비생 절호의 기회!(2과목만 하면된다.)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서 ☎ 222-4560